

晦齋의 「講學明理之功」의 政治思想研究

琴 鍾 友
琴 士 樹

目	次
I. 序 論	Ⅲ. 講學明理의 功(修身三)
Ⅱ. 講學明理의 功(修身二)	1. 盡心知性·存心養性·人皆可以爲堯舜·尊德性而道問學
1. 得師好問·執中用中·安止幾康·昭德制心	2. 德勝氣質·中爲至正·先辨學術之邪正是非·一以貫之
2. 大學之道·進德居業·博文約禮·思曰齊齋作聖	Ⅳ. 結 論

I. 序 論

晦齋 李彥迪 先生((1491年—1553年)은 朝鮮王朝 中期의 大學者이며 政治家이며 큰 著述을 남겼다.

그 著述 가운데는 《中庸九經衍義》가 포함되어 있다. 이 《中庸九經衍義》는 《中庸》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天下國家를 다스리는데 九經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九經」을 衍義한 것이다. 「九經」은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體君臣, 子庶民, 來百工이다. 先生은 이 가운데 修身, 尊賢, 親親만을 衍義하고 未完成으로 그쳤다.

晦齋先生은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을 「總論修身之道 修身一」¹⁾, 「講學明理之功 修身二, 修身三」, 「誠意正心之功 修身四, 五」²⁾, 「言行威儀之勤 修身六」³⁾ 으로 나누어 衍義하고 있는데 이 研究는 「講學明理之功」에 관한 것이다.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爲天下國家之本)은 修身이다. 修身에 대하여 《大學》에는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하니라」고 하여 修身의 根源이 「格物致知」에 있다고 闡明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晦齋先生이 修身二, 修身三으로 「講學明理之功」을 衍義하는 所以라고 하겠다.

朱子는 「大學의 道는 天子로 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修身으로써 根本을 삼는 것이다」고 하고 「그러나 몸을 한갓 닦을 수만은 없으니(然身不可以徒修也) 그 根本을 깊이 찾는다면 事物의 이치를 窮究하여 致知하는데 있을 뿐」⁴⁾이라고 한다. 이

1) 琴鍾友·琴士樹, 〈「晦齋」의 《中庸九經衍義》의 政治思想研究〉《韓國의 哲學》(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89) pp.105—143.

2), 3) 琴鍾友, 〈「晦齋」의 誠意正心·言語威儀의 政治思想研究〉《논문집》(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pp.143—159.

어서 말하기를 「惟精惟一允執厥中」이라는 것이 또한 이 「大學의 道」라고 한다.

晦齋先生은 「帝王의 學」은 그 要旨가 誠意正心하고 修身하여 齋家, 治國, 平天下의 根本을 삼는데 있다고 하고 그 「誠意正心の 要點」은 만드시 明理하는 것으로서 먼저하니 所謂「格物致知」라는 것은 「講學明理」⁵⁾의 일이라고 한다.

晦齋先生은 이어서 말하기를 「後世의 君子는 거의 크게 昏亂하여 法度를 무너지게 하고 英君 諛辟의 善治에 뜻을 가진者도 또한 根本을 바꾸고 근원을 깨끗이 하는데 從事하지 않고 智謀功利的 末에 規規하니 다스려진 날은 항상적이고 이지러운 날은 항상 많아 이 백성에게 政治의 惠澤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은 이 學問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君主가 배우고 안배우는데 세상의 否泰와 나라의 治亂과 백성의 休戚이 메어져있으니 그렇다면 君主는 道學을 단 하루라도 講하지 않으랴. 대저 所謂道學이라는 것은 窮理正心일뿐이니 이 밖에 學問하는 것은 帝王의 學이 아니다」⁶⁾고 한다.

II. 講學明理의 功(修身二)

1. 得師好問·執中用中·安止幾康·昭德制心

여기서 晦齋는 먼저 中庸에서 引用하고 朱子의 註釋을 달고 끝으로 自身이 按察하고 있다.

孔子께서 「舜은 큰 지혜있는 분이다. 舜은 남에게 물기를 좋아했다. 淺近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지만 남의 나쁜 일을 숨겨주고 좋은 것은 덮어두지 않고 드높여주며 善가운데도 두 끝(極端)을 잡아서 헤아려서 中을 취한 연후에 그 中을 백성에 대해서 쓰시니 이것이 舜됨이 신저」고 말씀하셨다.

朱子는 말하기를 「舜이 偉大한 지혜있는 者라고 하는 것은 自己의 知를 쓰지 않고 남들의 知를 取하여 썼다. 天下의 知를 습하여 한 사람의 知로서 쓴데 있다. 邇言이라고 하는 것은 淺近한 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도 만드시 살피면 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말이 善하지 않는 것은 숨겨서 퍼지 善하고 善한 것은 덮어두지 않고 퍼지게 했다. 舜의 德이 이와 같이 廣大하고 光明하고 빛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舜에게 善을 告하려고 하였다. 兩端이란 衆論이 서로 같지 않는 極致를 이룬다. 대개 모든 事物은 두 끝이 있으니 작고 크고(小大) 두텁고 얇은(厚薄) 것의 類와 같은 것이다. 이 善에도 兩端이 있을 것이니 이 兩端을 잡고 헤아려서 그 「中」을 取한 연후에 쓰면 그 가린 것(擇)이 자세하고 行하는 것이 지극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들에게 있는 權度가 (權衡尺度, 計器)가 精切하고 틀림이 없어야 이렇게 할

4) 《中庸九經衍義》卷之三.

5) 《中庸九經衍義》卷之三.

6) 上同

수 있을 것이다.

(權度가 精密하여 틀림이 없다는 것이 絕對必要하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知가 過不及이 없이 道가 行하여지는 것⁷⁾이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舜은 본래 自己도 智慧가 있었는데 또 能히 天下의 知를 合하여 한사람의 智로 하고 自己의 智를 自己가 쓰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智가 더욱 크게 된 所以이다. 만약 自己 한사람의 所有에만 依據한다면 문득 다하여 없어질 것이다. (窮盡) 비록 淺近한 말일지라도 至極한 理致가 存在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소홀히 하는데도 舜은 살피기를 좋아했으니 道體를 洞見하여 精粗差別이 없는 이가 아니면 能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것⁸⁾」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晦齋는 按察하기를 「天下의 理致는 無窮하여 비록 聖智일지라도 能히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 때문에 舜의 生而知之로서도 또한 能히 學問의 功이 없을 수는 없다. 所謂 문기를 좋아하고 淺近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대개 天下事物의 理致를 窮究하되 오히려 一理라도 밝지 못함이 있고, 一善이라도 훑어 버릴까 두려워하여 말한 것⁹⁾이라고 하고 있다. 「그 때문에 孟子는 말하기를 舜은 一善言을 듣고 一善行을 보고는 江河를 터놓은 것처럼 沛然하여 能히 막을 수 없었다.」¹⁰⁾고 하였으며 또 「舜은 일찍이 미친했을 때 歷山에서 농사를 지었고 강가에 도기를 굽고 雷澤에서 고기잡이를 했을 때 (耕稼陶漁)로 부터 帝位에 오르기 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取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¹¹⁾고 하였다. 「대개 舜의 德은 溫恭에 根本하여 항상 虛心하여 天下의 理致를 살피고 天下의 善을 받아들였으므로 能히 庶物에 밝고 人倫을 살피서 仁義의 道에 말미암았으니 虞書에 이른바 「精一執中의 學」은 正히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後世의 君主가 聖學에 뜻을 둔다면 舜을 法삼지 않겠는가」고 한다.

다음은 《書經》 商書 「仲虺之誥」에서 引用衍義하고 있다. 仲虺는 湯王의 左相인데 글을 지어 湯王에게 告한 것이 「仲虺之誥」이다. 여기에서 말하기를 「德을 날로 새로이 하면은 나라 사람의 마음이 돌아 올 것이요. 스스로 驕盈하면 九族이 떨어져 나갈 것이니 王은 大德을 힘써 밝혀서 백성에게 中正의 道를 세우소서. 義로써 일을 制裁하며 禮로써 마음을 잡아서야 後孫에게 넉넉한 道를 남길 것¹²⁾」이라고 한다. 「나는 듣건대 能히 스스로 스승을 얻었다. (能自得師)고 말한 耆는 天下를 가지게 되고 남을 自己보다 못하다고 말한 耆는 滅亡하게 된다. 문기를 좋아하면 德이 넉넉하고 自己 멋대로 일을 당하는

7) 本章의 議論은 儒敎의인 思惟方法의 特徵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다고도 한다. 곧 舜의 聖人된 所以로서 世論의 尊重, 特別 卑近한 말의 尊重 또 他人의 惡을 숨겨주고 善을 드러낸다는 處世術의 태도는 그만둔다하더라도 善에 있어서도 兩端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中」을 가려내려는 態度는 儒敎의인 思惟로서 注目된다. 《禮記》에 「直情徑行은 戎狄의 道」(檀弓下)라는 말이 있지만 善의 實踐에 있어서 마저 熱狂的 理想主義가 아니고 兩端을 計量하여 그 中을 잡는다(執)는 冷靜한 態度를 主張하고 있다. 儒라고 하는 字는 儒와 通하는 말인데 그 態度가 優柔不斷한 데서 이를을 붙인 것이라 하거니와 그것은 思惟의 根本態度, 朱子의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鳥田慶次《中庸》(朝日新聞社 1958 p.51) 《孟子》盡心章句上, 舜之章.

9) 《孟子》公孫丑章句上, 子路章.

者는 德이 적어질 것」¹⁰⁾ 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蔡沉은 「德日新이라고 하는 것은 그 德을 날로 새롭게 하여 그 스스로 그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志自滿이란 것은 이와 反對되는 것」이라고 한다. 湯王의 盤銘에 「진실로 날로 새롭게 하면 나날이 새롭게 되고 또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하였으니 日新의 뜻을 넓힌 것」이라고 한다. 德이 날로 새로우면 萬邦이 비록 廣大하더라도 歸心하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며 뜻이 스스로 滿盈하면 九族이 비록 親近하더라도 또한 離心될 것이니 萬邦은 먼 곳을 들어 가까운 곳을 보인 것이고 九族은 親近한 것을 들어 疎遠한 것을 보인 것」이라고 한다.

「王은 大德을 힘써 밝혀 天下에 中道를 세울 것이니 「中」이라고 하는 것은 天下의 同有한 바이나 그러나 君主가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백성이 能히 스스로 中치 못하니 「禮義」라고 하는 것은 中을 세우는 바의 것이다. 「義」는 마음의 裁制이고 「禮」라고 하는 것은 理의 節文이므로 義로써 일을 裁制하면 일이 그 適宜함을 얻을 것이며, 禮로써 마음을 節制하면 마음이 그 바름을 얻을 것이니 內外가 合德함으로써 中道가 세워진다. 이와 같으면 다만 백성에게 中道가 세워지고 後世에 남길 것도 또한 綽綽하게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道는 반드시 배운 뒤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그 때문에 또 古人의 말을 들어서 스승을 높이고 문기를 좋아하면 德이 높고 業이 넓어지며 자신이 잘 난 체하고 自己 단독으로 일을 처리하는 者는 이와 反對로 될 것」이라고 한다.

「스스로 스승을 얻었다고 이른 것은 自己의 不足한 점과 다른 사람의 餘裕있는 점을 참으로 알고 委心聽順하여 拂逆함이 없는 것을 이른 것이다. 孟子가 말하기를 湯王은 伊尹에게 배운 뒤에 그를 臣下로 삼았던 까닭으로 勞力하지 않고도 王이 되었다고 하니 그 湯이 自得한 바」라는 것이다.

「仲虺는 말하기를 諸侯를 懷柔하는 道를 미루어 修德檢身에까지 이르고도 미루어 能自得師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니 대저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스승을 버리고 能히 성취된 者는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비록 生而知之한 聖人일지라도 또한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後世가 옛날과 같지 않은 것은 다만 世道가 내려오면서 뿐 아니라 또한 역시 師道가 밝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仲虺의 理論은 흐름(流)을 거슬러 根源을 찾아 그 極을 要約하여 「能自得師」라고 하는 한 말(一言)에다 歸結시켰으니 可히 帝王의 큰 법이 될 것」이라고 한다.

眞德秀는 말하기를¹²⁾ 「德으로 몸을 닦은 것이 날로 새롭고 그치지 않으면 萬邦이 歸

10) 仲虺之誥(商書篇名仲虺湯之左相作此以告成湯) 日德日新萬邦惟懷(懷謂心歸之也) 志自滿九族乃離 王懋 昭大德建中于民(建立也 中者無過不及之謂) 以義制事(制裁制也) 以禮制心垂裕後昆予聞曰能自得師者王謂人莫已若者亡好問則裕自用則小(《中庸九經衍義》卷之三, 仲虺之誥條)

11) 王其勉明大德立中道於天下中者天下之所同有也然非建之則民不能以自中而禮義者所建中者義者心之裁制禮者理之節文以義制事則事得其宜以禮制心則心得其正內外合德而中道立矣 如此非特有以建中於民諸後世者亦綽乎 有餘裕矣然是道也必學焉而後至故又舉古人之言以爲隆師好問則德尊而業廣自賢自用者反是……(《中庸九經衍義》卷之三)

12) 雖生知之聖亦必有師焉後世之不如古非特世道之降抑亦師道之不明也仲虺之論遡流而源要其 極而歸

心하게 되니 所謂 多助의 至極함에는 天下가 順應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바가 驕盈自足하면 九族도 이에 떨어져 나가니 所謂 寡助의 至極함에는 親戚도 배반한다」¹³⁾는 것이다.

「날로 새로우면 날로 더욱 進歩하게 될 것이니 堯舜의 兢兢業業하였던 일이 그것이고 스스로 驕盈하면 날로 더욱 怠忽하게 될 것이며 後世君主의 終末을 잘 하지 못한 일이니 治亂의 區分이 이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懋昭大德은 所謂 日新其德이니 「懋」는 항상 勉勵하고자 하는 것이고 「昭」는 항상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어느 때나 힘쓰지 않음이 없으면 그 德도 어느때나 밝지 않음이 없다. 懋라고 하는 一語는 그 機括인 것이니 《大學》에 引用한 湯王의 盤銘이 곧 그 일」이라는 것이다. 「懋昭大德이라는 것은 修身의 일이니 《大學》의 所謂 「明明德」이다. 「建中于民」이라고 하는 것은 自己 몸으로 다른 사람을 거느리는 일이니 《大學》의 所謂 新民인 것」이라고 한다.

「中이라는 것은 民性의 根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事物로 困하여 옮김이 있기 때문에 그 正을 잃게 되니 聖人은 一身으로써 백성의 표준이 되어 하여금 바라보고 추창케 하여 모두 中에 돌아가게 하니 이것이 所謂 「建中于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道는 어찌 다른 것이 있으리오. 義로써 일을 裁制하고 禮로써 마음을 節制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 일은 萬端이나 있으므로 쉽사리 裁決處理 할 수 없으나 다만 「當然之理」로써 揆度한다면 舉措가 適當하여 一事의 不中도 없을 것이며 마음은 萬慮나 있으므로 쉽사리 執持할 수 없으나 다만 敬에 內主하여 視聽言動을 敢히 放肆하지 않는다면 周旋이 禮節에 適中하여, 一念의 不中함도 없을 것이다. 임금의 中은 백성의 中이다.

自己의 善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의 善을 取하면 이에 興하게 되고 이에 반대되면 危亡의 道가 된다」는 것이다. 「虛心好問하면 天下의 善이 모두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어찌 넉넉하지 않겠으며 才能을 자랑하고 自己 任意로 하면 하나의 自己의 善이 그 얼마 안될 것이니 어찌 작지 않으리오, 湯王은 聖人이로되 仲虺가 學問으로써 勉勵하여 丁寧切至함이 이와 같았으니 後世의 君主는 그 말을 깊이 吟味하지 않으리오」고 한다.

以上과 같이 引用衍義하고 晦齋는 按察¹⁴⁾하기를 懋昭大德이라고 하는 것은 堯 임금의 克明俊德이며 以禮制心이라고 하는 것은 舜임금의 惟精惟一이라는 것이다. 「得師好問」이라고 하는 것은 舜임금의 「取人爲善과 好問好察」이며 「建中于民」이라고 하는 것은 堯舜의 執中用中」이라는 것이다. 「仲虺가 湯王에게 告한 것은 堯舜의 道가 아닌 것이 없

諸能自得師之一語其可爲帝王之大法也歟(《中庸九經衍義》卷之三).

13) 德修於身者日新而不已則萬邦惟懷所謂多助之至天下順之也心之所存者驕盈自足則九族乃離所謂寡助之至親戚畔之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

14) 臣按懋昭大德者堯之克明俊德也以禮制心者舜之惟精惟一也得師好問者舜之取人爲善好問好察也建中于民者堯舜執中用中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

으므로 湯王이 學問하여 聖人의 경지에 나아간 것도 이에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學問하는 根本을 찾는다면 得師好問하는데 있었을 뿐이며 得師好問의 根本도 또한 스스로 驕盈하지 않았는데 있었다」고 하고 있다.

「진실로 謙恭의 德이 없고 自滿하는 생각만 있다면 어찌 能히 尊德樂道하고 理義를 詢訪하여 日新의 功이 있을 것인가.

세상의 君主가 驕矜侮慢함으로 善은 날마다 소멸되고 惡은 날마다 자라나서 마침내 法度와 禮義를 무너지게 된 것은 다만 그 自滿의 생각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한다. 「賢人을 업신여겨서 國家를 잃어버리는 根源이 실로 이에 있으니 可히 儆戒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¹⁵⁾하고 있다.

「說命(書篇名傳說也高宗立以爲相)에 傳說이 말하기를 옛사람의 가르침(古訓)을 배운 然後에야 깊이 義理를 알고 物情을 通하여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니 그때문에 일은 옛것을 본 받지 아니하고 能히 政治를 長久히 한 者는 듣지 못한 바이며 오직 배운 뜻을 謙遜히 하되 能치 못한 바가 있는 것 같이 하고 배우는데 민첩하되 민지 못한 바가 있는 것 같이하면 學業의 닦는 것이 옳을 것이니 진 실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道는 절로 그 몸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眞德秀는 말하기를 「古訓』이라고 하는 것은 옛 先聖王의 가르침이니 書經의 典謨가 이것이라고 한다. 學問은 반드시 古訓에 求해야만 얻을 수 있다. 만약 聖人의 書가 아닌 것을 읽는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리요. 「獲』이라고 하는 것은 自己에 얻는다는 것이다. 學問은 반드시 自得하여야만 功이 되는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道는 道이고 나는 나로서 學問하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다」고 한다.

이에 晦齋는 按察하기를 「學의 名稱은 비록 高宗에 이르러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學』의 淵源은 실로 堯舜時代에 開創되어 夏·商에 流傳되고 周나라에 이르러 크게 밝아졌다. 대개 精一執中은 堯舜의 學이요. 安止幾康¹⁶⁾은 大禹의 學이요. 昭德制心은 湯王의 學이요. 文王의 宅心라 武王의 訪道와 成王의 緝熙光明에 이르기까지 이에 從事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前聖後聖이 달은 비록 다르더라도 道는 하나였던 것이다. 이때에는 聖道의 昭明함이 太陽이 中天에 뜬 것처럼 되어 異端의 說도 없고 辭章의 習도 없으며 帝王의 일삼는 것은 心學뿐이었으니 어찌 簡易하여 밝히기 쉽지 않으며 純一하여 混雜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¹⁷⁾하고 있다.

이어서 《禮記》學記篇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學記에 君主가 만약 化民成俗하

15) 世之人主驕矜侮慢善日消而惡日長終至於敗度敗禮者惟其自滿之念故也 做賢喪國之源實在於此不可不戒(《中庸九經衍義》卷之三),

16) 《書經》益稷篇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이 항상 道心에 머물도록 安定시켜 일의 幾微를 재빨리 포착하여 處事를 여기에 맞도록 살핀다는 뜻이다,

17) 臣按學之名雖曰至高宗而始見學之淵源則學啓於唐虞之世而流傳於夏商以及於周而大明蓋精一執中堯舜之學也安止幾康大禹之學也昭德制心成湯之學也以至文王之宅心武王之訪道成王之緝熙光明無非從事於此者而前後聖言雖殊而道則一當是時聖道昭明如日中天無異端之說無辭章之習帝王之所事心學而已矣豈不簡而易明一而無雜乎(《中庸九經衍義》卷之三).

고지 한다면 반드시 學에 달미아야 할것인저하고 王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道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옛 王者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림에 敎學을 먼저 했다. 說命(商書의 篇名)에 이르기를 언제나 學問을 생각하고 힘쓴다는 것은 이를 이름이다. 비록 佳肴가 있더라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알지 못할 것이며 비록 지극한 道가 있다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그 착한 것을 알지 못한다」¹⁸⁾고 하고 있다. 이를 晦齋는 按察하기를 化民成俗은 반드시 堯舜의 「於變時雍」처럼 되어야 이에 지극함이 될것이라고 하고 만약 君主가 治化에 뜻을 둔다면 그 道는 반드시 學에 基因해야 될 것이니 學이란 것은 德을 밝히는 것이므로 그 德을 밝히지 않고 그 백성을 새롭게 한 者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物은 溫潤의 美質이 있더라도 雕琢의 功을 거치지 않으면 寶器를 이룰 수 없으며 사람은 秉彝의 良性이 있더라도 學問의 힘을 이루지 않으면 道理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凡人도 그렇지 않은者가 없는데 君主는 億兆蒼生위에 있어 君師의 責任을 맡았으니 비록 明睿의 資質이 있더라도 진실로 學問을 힘써서 이치를 밝히고 道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天職을 다스리고 民德을 바를 수 있겠는가」고 하고 있다.

이어서 또 「學記」에서 引用하기를 「大學의 法에 惡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 금지하는 것을 豫라하고 發한 뒤에 禁止하면 扞格하여 制御할 수 없으며 때가 지난 뒤에 배우면 勸苦하여도 성취하기 어려우며 雜施(시기와 정도 등을 무시해서 절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하여 順理로하지 않는다면 혼란을 빚어 닳아지지 않으며 홀로 배워 벗이 없으면 孤陋하여 寡聞이 된다. 燕明은 그 스승을 거스리고 燕僻은 學을廢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晦齋는 按察하기¹⁹⁾를 「사람이 나서 靜하여 天性이 純粹 完全할 적에는 물이 물결이 일지 않고 거울이 먼지가 묻지 않는 것처럼 되니 養正의 功을 지극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後世의 君主는 欲心을 放縱 하고 法度를 무너지게 하고 忠言正論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未發할 적에 禁止할 줄을 알지 못했던 때문이라는 것이다. 옛적에는 八歲에 小學에 入學하고 十五歲에 大學에 入學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時期」라는 것이다. 時期가 지난 뒤에 배운다면 그 勞力을 百倍로 하지 않으면 마침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大學의 法에 節目과 先後가 있으니 차례를 따라 점차 나아가면 理順하여 어기지 않

18) 學記君子欲化成俗其必由學乎玉不琢不成器人不學不知道是故古之王者建國君民敎學爲先說命曰念始典于學其此之謂乎雖有嘉肴不食不知其旨也雖有至道不學不知其善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學記條)

19) 臣按人生而靜天性純完如水未波如鏡未塵養正之功不可不至宜以格言至論日陳於前養其本然之善禁其物欲之萌則可以全德性之美而爲聖爲賢矣昔者周公之輔成王也幼而習之所見必正事所聞必正言左右前後皆正人故能習與智長化與心成終爲有周令王此所謂禁於未發也如或敎諭不豫私意偏好生於中衆口辯言金樂於外其性已鑿而失其初矣乃欲以言語訓戒防其情止其欲必有扞格不勝之患矣後世人主縱欲敗度而忠言正論皆不能入者由不知禁之於未發故也古者八歲入小學十五入大學此所謂時也時過然後學則非百倍其功終無以有成矣《中庸九經衍義》卷之三「大學之法」條)

는다. 그 때문에 「遜」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躐等하고 節次를 어기면서 혹시 聖道를 毀謗한 書와 異端의 說로써 섞어 읽는다면 다만 道에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心術을 毀亂시키는데 이르게 될 것이다. 또 講磨切磋함도 반드시 어진 師友에게 힘입어야 될 것이니 君主가 비록 學問에 뜻을 두더라도 진실로 賢德博文的 士를 얻어서 左右에 두고 날로 더불어 道義를 講明하고 古學을 討論하지 않으면 道에 나아가 業을 넓힐 수 없으므로 孤陋寡聞을 면치 못한」다고 한다.

「學問하는 要領은 豫備에 있고 循序專一이 소중한 것이나 그러나 반드시 賢臣을 親近하고 姦臣을 멀리하며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欲心을 적게해야만 이에 窮理하여 進德한다」는 것이다.

또 晦齋는 《禮記》學記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는데 〈學記〉에 이르기를 무릇 배움의 길은 스승을 尊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고 있다. 스승을 존경하여야만 道가 높아진다. 道가 높아진 然後에야 백성이 學問을 공경(敬學)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君主가 그 臣下를 臣下로 대하지 않는 것에 두가지가 있다. 그 尸가 된 즉 臣下가 되지 않으며 그 스승이 된 즉 또한 臣下가 되지 않는다. 大學의 禮에 비록 天子에게 背하더라도 北面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승을 높이는 것²⁰⁾이라고 한다.

先生은 이를 按察하기를 「君主의 學問은 能히 스승을 존경하는 道理를 다함이 어려운 것이니 스승은 道를 傳하는 것이므로 스승을 존경하면 道는 스스로 높아지고 學問은 道를 행하기 위한 바이기 때문에 道가 높으면 백성이 學問을 공경한다」는 것이다.

「옛적에 武王이 丹書(上古에 帝王의 道가 쓰여있는 冊)를 師尚父(呂尚)에게 받을 적에 王도 禮服을 입고 師尚父도 또한 禮服을 갖추어 丹書를 받들고 들어와서 王은 東面하여 서고 師尚父는 西面하여 道書의 말을 告하였으니 스승을 尊敬하는 道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저 貴한 한 사람(天子)이 賤한 匹夫를 스승으로 대하여 賓師의 位로써 존경하고 敢히 臣下로 하지 않는 것은 그 道德이 있음이라 先儒周子가 말하기를 天地間에 지극히 높은 것은 道이며 지극히 貴한 것은 德이며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은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은 道德을 그 몸에 所有하는 것 뿐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帝王의 學은 다만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其人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우니 스승을 존경하되 其人을 얻지 못하면 또한 大道를 밝혀서 聖域에 나아갈 수 없다. 漢明帝 桓榮을 존경하고 章帝는 張酺를 존경하여 비록 講論箴規의 益은 있었지만 能히 窮理盡性하여 堯舜三王의 隆盛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스승을 얻었다고 하겠는가」고 하고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講學明理의 功」으로 《中庸》에서 「舜의 大知」《尚書》仲虺

20) 凡學之道嚴師爲難師嚴然後道尊道尊然後民知敬學是故君之所不臣於其臣者二當其爲尸則不臣也當其爲師則不臣也大學之禮雖詔於天子無北面所以尊師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

之誥, 說命, 《禮記》의 學記등에서 引用하고 諸家의 註釋을 달고 스스로 按察하여 衍義하고 있다.

仲虺之誥의 懋昭大德이란 堯의 克明俊德이며 以禮制心이라는 것은 舜의 惟精惟一이며 得師好問이라는 것은 舜의 取人爲善과 好問好察이며, 建中于民이란 堯舜의 執中用中이며 仲虺가 湯王에게 告한 것은 堯舜의 道가 아닌 것이 없었으므로 湯王이 學問을 하여 聖人의 地경에 나아간 것도 이에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라 하고 學問의 根本은 得師好問하는데 있고 得師好問의 根本은 스스로 驕盈하지 않는데 있으니 진실로 謙恭하는 德이 없고 自滿하는 생각만 있다면 어찌 能히 尊德 樂道하고 理義를 詢訪하여 日新의 功이 있겠는가 고 한다.

精一執中은 堯舜의 學이요 安正幾康은 大禹의 學이요, 昭德制心은 湯王의 學이라고 하고 前聖後聖이 달은 비록 다르나 道는 하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2. 大學之道·進德居業·博文約禮·思曰睿作聖

위에 이어서 《大學》의 八條目中에서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하니라」를 引用하고 諸家의 註釋을 달고 스스로 按察하여 衍義하고 있다. 그 內容을 먼저 考察하기 위해 引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朱子는 말하기를 「大學의 道는 天子로 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修身을 根本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몸을 한갓 닦을 수 만은 없으니 그 根本을 깊이 찾는다면 事物의 이치를 窮究하여 그 知를 이루게 하는데 있을 뿐이다. 대저 格物이라고 하는 것은 窮理를 이르는 것이다. 대저 이 事物이 있으면 반드시 이 理致가 있다. 그러나 理致는 形態가 없으므로 알기 어렵지마는 事物은 자취가 있으므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事物로 因하여 이치를 求해서 이 이치로 하여금 心目的 사이(間)에 瞭然케 함으로써 毫髮의 差가 없으면 일에 應하는 것도 저절로 毫髮의 誤謬도 없을 것이니 이로써 뜻이 誠實하고 마음이 바로 잡혀 身修하여 家齊, 國治, 天下平에 이르러 또한 그대로 措置될 뿐」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大學의 道로써 비록 옛 聖人의 生而知之라도 또한 이를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堯舜이 서로 授受한 所謂 「惟精惟一 允執厥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天道가 流行하여 造化가 發育하니 모든 聲色, 貌象이 있어 天地間에 차는 것(盈)은 모두 物인 것이다. 이미 이 物이 있는 즉 이 物이 된 것이 자기 當然之則이 있으므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다 하늘이 賦與한 바에 얻을 것이고 人間의 能히 할 바는 아닌 것이다. 이제 그 지극히 切近한 것으로써 말하면 마

21) 朱子曰大學之道自天子以至於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中庸九經衍義》卷之三, 大學曰條).

음의 物이 된 것은 실로 몸에 主宰가 되어 그 體는 仁義禮智의 性이 있고 그 用은 惻隱, 恭敬, 是非의 情이 있으며 渾然히 그 속에 있으면서 隨感 隨應하여 자기 主宰가 있으니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몸(身)이 갖추어진 바에 미친다면 口, 鼻, 耳, 目四肢의 用이 있고 또 다음으로 몸(身)의 接한 바에 미친다면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倫常이 있으니 이것이 모두 當然之則이 있어 스스로 어쩔수 없는 것이니 所謂「理」이다. 밖으로 他人에 이르면 他人의 理도 自己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멀리 物에 이르면 物理도 사담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大를 다하면 天地의 運과 古今의 變도 能히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 小를 다하면 一塵의 微와 一息의 頃刻도 能히 이에 빠뜨려지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上帝께서 賦與한 稟이오 온 백성(蒸民)이 가진 바의 彝常이다. 劉子の 所謂「天地之中」, 孔夫子の 所謂「性與天道」, 子思의 「仁義之心」, 程子の 所謂「天然自有之中」張子の 所謂「萬物之一原」邵子の 所謂「道之形體」²²⁾라는 것이다.

다만 그 氣質이 清濁偏正의 다름이 있고 物欲이 淺深厚薄의 差異가 있으니 이로써 사람과 物, 어질고(賢) 어리석음(愚)이 서로 懸絶되어 能히 같을 수 없을 뿐이다. 그 「理」가 같기 때문에 一人의 마음으로써 天下萬物의 이치에 能히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그 稟性이 다른 때문에 그 理致에 혹시 能히 窮究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理를 窮究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知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知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마음(心)의 發한 바도 반드시 能히 義理에 순수하여 物欲의 私의 섞어짐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그 뜻이 誠實하지 못함이 있고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 있고 몸이 닦아지지 않음이 있어 天下 國家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옛적 聖人이 대개 이를 근심함이 있어 이로써 그 처음 가르침을 小學으로 하여 誠敬을 익히게 했던 것은 그 放心을 거두고 德性을 기르는데 그 지극함을 쓰지 않음이 없었다.

大學에 나아간 즉 또 事物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아는 바의 理에 因하여 미루어 연구해서 자기 그 極에 이른다면 나의 知識도 또한 周遍精切하여 다하지 못함이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만약 그 用力하는 方法은 혹은 事爲의 著에 考究하고 혹은 念慮의 微에 省察하고 혹은 文字의 中에 求得하고 혹은 講論의 際에 求索하여 身心性情의 德과 人倫日用的 常에서 天地鬼神의 變과 鳥獸草木의 마땅함(宜)에 이르기까지 그 一物의 가운데(中)로부터 그 所當然이 있어 그칠 수 없는 것과 그 所以然이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그 表裏精粗를 다 研究하지 않음이 없고 또 더욱 그 類를 미루어 알아 通達하여 一日에 豁然히 貫通하는데 이른다면 天下의 事物에 있어서 다 그 義理精微의 至極한 바를 研究함으로써 나의 聰明睿知도 또한 모두 그 마음의 本體까지 窮極하여 다

22) 劉子所謂天地之中夫子所謂性與天道子思所謂天命之性孟子所謂仁義之心程子所謂天然自有之中張子所謂萬物之一原邵子所謂道之形體者(《中庸九經衍義》卷之三, 大學曰條).

하지 앎이 없을 것」이라 한다.

「程子は 말하기를 格物은 또한 一端이 아닌 것이나 혹은 글을 읽어 眞理를 講明하던지 혹은 古今人物을 評論하여 그 是非를 辨別하던지 혹은 事物을 應接하여 그 當否에 對處하던지 이것이 모두 다 窮理」라고 한다. 「致知의 要는 마땅히 至善의 所在를 알아야 되는 것이니 父는 慈에 그치고 子는 孝에 그치는 類와 같은 것」²³⁾이라고 한다.

또 「天下의 理致는 먼저 알지 않으면 또한 能히 힘써 行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大學의 順序에 致知를 먼저 말하고 誠意를 뒤에 말하였으니 그 차례를 뛰어넘어 갈 수 없다. 진실로 聖人의 聰明睿智도 없으면서 다만 힘써서 그 行事的 自취만 밝히려고 한다면 또한 어찌 能히 저들의 動容周旋이 禮에 適中한 것과 같겠는가」고 한다.

「다만 그 이치를 밝게 헤아리면 能히 힘쓰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절로 循理하게 될 것이다. 대저 사람의 性은 本來 善하지 앎이 없으니 이치를 따라 行함은 마땅히 어려운 것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알기를 지극히 하지 못하면서 힘으로만 하고자하니 이로써 그 어려움만 고통스럽게 여기고 그 즐거움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기를 至極히 하면 이치를 따르는 것이 樂이 되고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 즐겁지 않게 될 것이니 무엇이 고통스러워서 이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쫓으려는가.

옛적 일찌기 범(虎)이 사람을 傷害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 사람이 듣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도 그 중 한사람이 神色이 홀로 변하기를 그 所以然을 물으니 일찌기 범에게 傷害를 입은 者였다. 대체로 범이 能히 사람을 傷害한다는 것은 사람이 누가 알지 않으리오마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한 者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者도 있는 것은 알기를 참으로 알고 참으로 알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다. 學者가 道를 아는 것도 반드시 이 사람이 범을 아는 것과 같이 되어야만 지극함이 될 것이다. 만약 不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혹시 하면 또한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닐 뿐」이라고 하고 있다.

또 「致知는 養性하는 바에 있으니 知를 涵養하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또 道에 들어가는 데는 敬만한 것이 없으니 能히 致知하면서도 마음이 敬에 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²⁴⁾고 한다.

以上과 같이 引用하여 衍義하고 晦齋는 按察하기를 「帝王의 學은 그 要旨가 誠意「正心하여 그 몸을 닦아서 齊家, 治國, 平天下의 根本을 삼는데 있다」고 하고 그 「誠意正心하는 要點은 또 반드시 明理하는 것으로써 먼저하니 所謂「格物致知」라고 하는 것은 講學明理의 일이라고 한다.

23) 程子曰格物亦非一端如或讀書講明道理或論古今人物而別 其是非或應接事物而處其當否皆窮理也又曰致知之要當知至善之所在如父止於慈子止於孝之類(上同),

24) 又曰致知在乎所養養知莫過於寡欲(欲寡則心有所養而知明) 又曰入道莫如敬未有能致知而不在敬者(《中庸九經衍義》卷之三),

25) 蓋學之不講理有不明則自吾身心性情之近以至人倫日用之常無以眞知至善之所在而止 之其發於心者豈能一於理而無自欺乎…(上同)

「대개 學問을 講究하지 아니하여 이치가 밝지 못함이 있으면 나의 身心, 性情의 가까운 것으로 부터 人倫 日用의 떳떳한 일에 이르기까지 至善의 所在를 참으로 알아서 그곳에 그치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에서 發한 것도 어찌 能히 理致에 한결 같아서 스스로 속임이 없겠는가」²⁵⁾고 한다.

「뜻이 정성스럽지 못하면 마음 속에서 天理는 장차 싹트려다가 窒塞되고 人欲은 가만히 盛해져 막아버리기 어려울 것이니 또 어찌 能히 그 清明 快足한 즐거움을 이루어 그 本體의 正을 열어서 偏跛함이 없겠는가」고 하고 있다. 「마음이 이며 그 正을 얻지 못하면 視, 聽, 言, 動이 禮節에 어긋나고 惰慢邪僻이 혹시 몸에 배어서 百行이 허물어지고 萬善이 서지 않을 것이니 어찌 이 몸을 正大高明한 地域에 세워서 萬民의 準則이 되겠는가」는 것이다.

「몸이 이미 닳아지지 않으므로 愛, 惡, 哀, 敬을 혹시 偏僻됨에 잃어버리면 一家內에서도 尊卑의 序次가 그 分類를 얻지 못함이 있을 것이며 思義의 厚薄이 그 公平을 얻지 못함이 있을 것이니 또 어찌 能히 朝廷을 바꾸고 百官을 바꾸어 四方萬民을 바꾸기를 바라겠는가」고 하는 것이다.

「天下가 비록 크더라도 이것을 다스림은 마음에 있으며 四海가 비록 멀더라도 이것을 다스림은 道에 있으니 진실로 能히 그 道를 밝히고 그 마음을 바꾸면 몸이 닳아지지 않음이 없어 天下가 化하고 四海가 歸心할 것이며 堯舜 三王의 道도 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君主가 聖學에 뜻을 두면 그 또한 이에 힘쓸 뿐」이라고 한다. 「하늘이 백성을 내려서 임금에 있고 스승이 있게 하였으니 그 부여한 重大性이 어찌 古금이 다르겠느냐」는 것이다. 「옛 聖帝明王이 繼天立極하여 빛을 온 세상에 퍼고(光被四表) 萬世의 法이 된 것은 이 學問이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後世의 君主는 거의 많이 昏亂하여 法度를 무너지게 하고 英君諠辟의 善治에 뜻을 가진 耆도 또한 근본을 바꾸고 근원을 깨닫지 하는데 從事하지 않고 智謀功利의 末에 規規하니 다스려진 날은 항상 적고 어지러운 날은 항상 많아 이 백성에게 政治의 惠澤을 입지 못하게 한 것은 이 學問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君主가 배우고 안배우는데 세상의 否泰와 나라의 治亂과 백성의 休戚이 배어졌으니 그렇다면 君主는 道學을 단 하루라도 講하지 않으랴 대저 이른바 道學이라는 것은 窮理正心일 뿐이니 이 밖에 學問하는 것은 帝王의 學이 아니라」²⁶⁾는 것이다.

다음으로 易經에서 引用하고 여러 註釋을 또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乾卦 文言에 「君子 學以聚之하고 問以辨之하며 寬以居之하고 仁以行之하니 易曰 見龍在田利見大人이라하니 君德也라」하고 있다. 君子는 學問에 의해서 知識을 모우고 是非를 분별한다. 이와같이하여 얻은 睿智에 입각해서 너그럽게 居하고 어질게 行하니 事

26) 治日常少亂日常多使斯民不得蒙至治澤者以其無此學也嗚呼人君之學與不學而世之否泰國之理亂民之休戚繫焉然則人主之於道學其可一日而不講乎夫所謂道學者 窮理正心而已矣外此而爲學者皆非帝王之學也(《中庸九經衍義》 卷之三)

物을 對應하고 政治를 行하니 易에 말하기를 見龍在田이니 大人을 보는 것이 利롭다. 곧 位를 얻은 것은 아니나 이 사람이 벌써 君德을 갖춘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程子는 말하기를 「學以聚之問以辨之」는 進德이고 「寬以居之仁以行之」는 居業이라고 하고 君德이 이미 드러나면 大人을 보는 것이 利로 우니 나아가 行하는 것」이라고 한다. 「乾은 龍으로 取象하였으니 地上에 나타난 것은 그 德이 이미 나타난 것이 聖人으로 말하면 舜 임금이 밭갈고 고기잡던 때인 것」²⁷⁾이라 한다.

朱子는 「四者(學·問·寬·仁)로 말미암아 大人의 德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眞德秀는 「말하기를 「乾은 天德이니 聖人の 일」이라 하고 「오허려 만드시 學으로 이루어지니 學을 그칠 수 없음이 이와 같다」고 하였다. 九二爻에 말하기를 「庸德之行庸言之謹閑邪存其誠善世而不伐德博而化」라고 하고 九三爻에 말하기를 「知至至之라 可與幾也며 知終終之라 可與存義也」라 하였으니 이것은 學之事라는 것이다.

徐幾는 말하기를 「德은 사람이 하늘로 부터 얻은 이치이므로 비록 나의 固有한 바이지만 그러나 또한 일찌기 事事物物 사이에 흠어져 있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진실로 學을 힘쓰지 않으면 衆理를 모아서 제 몸에 간직할 수 없으며 배우고 묻지 않으면(學而弗問) 또한 衆理를 辨別하여 條件이 紊亂하지 않게 할 수 없으므로 精粗本末을 혹시 선택할 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橫渠張子 는 「마음이 크면 百物을 모두 通하게 되고 마음이 작으면 百物이 다 고통스럽게 생각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또 大畜卦에 「貞한 것이 利롭다.」고 하고 그 象辭에 이르기를 하늘(天)이 山中에 있는 것이 大畜이니(天 三이 山 三가운데 있다.) 君子가 이를 모방하여 前言과 往行을 많이 알아서 그 德을 기른다.고 하고 있다.

程子는 말하기를 「하늘보다 큰 것이 없는데 山中에 하늘이 있는 形象이니 곧 艮이 위에 있고(艮이 外卦) 乾이 밑에 그치니(乾이 內卦) 다 至極히 큰 것을 蘊畜한 形象」이라는 것이다. 「사람에 있어서는 學術道德이 축에 充積한 것이니 이에 쌓은 바(所畜)가 큰 것이다. 「사람의 蘊畜은 마땅히 正道를 얻어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貞한 것이 利롭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易 大傳에 이르기를 「窮理盡性以至於命」²⁸⁾ 곧 「天下의 道理를 다 窮究하고 사람의 本性을 앎으로써(本性을 찾아서) 天命에 到達한다」는 것을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程子는 말하기를 「理, 性, 命, 三者는 일찌기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니 窮理하면 盡性하고 盡性하면 天命을 안다」는 것이다. 「天命은 天道와 같다. 그 用으로써 말하면 命이라 이르고 命이라는 것은 造化를 이룸」이라고 한다.

27) 程子曰學聚問辨進德也寬居仁行居業也君德已著利見大人而進以行之乾以龍爲象出見於地上其德已著以聖人言之舜之田漁時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 易乾之文言條)

28) 說卦傳第一章은 다음과 같다.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하고 參天兩地而倚數하고 觀變하고 於陰陽而立卦하고 發揮於剛柔而生爻하니 和順於道德而理於義하며 窮理盡性하여 以至於命하니라.

朱子は「窮理는 知이고 盡性은 行이니 자식이 되어 孝道하는 所以를 알고 臣下가 되어 忠誠하는 所以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 窮理이고 자식이 되어 能히 孝道하고 臣下가 되어 能히 忠誠하는 것이 盡性이다.

能히 그 理를 窮究하여 그 性의 所有를 充實히 하는 것을 盡이라 이르니 命에 이르는 것은 天에서 얻는 것을 말한다. 舜임금이 事親의 道를 다하니 天下의 父子된 者 定하는 데 이르나 이것을 안 者가 窮理者이고 이것을 能한자(能히 하는 者)가 盡性者라는 것이다. 「黃榦은 말하기를 性命은 同一한 것이라 天이 賦與한 바가 命이 되고 物이 받은 바가 性이 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論語》에서 引用 衍義하고 있다.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道에 뜻을 두고 德을 지키고 仁을 依支하고 文藝를 습득할 지니라」²⁹⁾고 하셨다. 이 장은 君子로서 修道하는 方法을 말한 것인데 「朱子は「志」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는 바를 이름이요, 道는 人倫 日用間에 마땅히 行할 바의 것이다. 이것을 알고 마음이 반드시 가면 가는 데가 바르게 되어 他岐의 迷惑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據라고 하는 것은 執守한다는 뜻이고 「德」은 道를 行하여 마음에 自得함이 있는 것이니 마음에 自得하여 執守不失하면 始終이 한결같아 日新의 功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依라는 것은 어기지 않는 것(不違之)을 이름이요, 仁은 私欲을 다 버리고 心德의 完全함이다. 工夫가 이에 이르러 終食할 동안에도 어김이 없으면 存養됨이 어디를 가더라도 天理의 流行 아님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游라고 하는 것은 玩物適情함을 이름이고 「藝」는 禮樂의 文과 射御書數의 法이니 모두 지극한 理致가 부치는 바로(所寓) 日用에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다.

晦齋는 朱子の 註釋을 引用한 뒤에 스스로 按察하기를 「志라고 하는 것은 向望求索의 뜻이 있는 것이니 《大學》의 格物致知가 곧 그 일이라 하고 「道는 聖人の 道」라고 한다. 「學問할 初期에는 마땅히 聖人の 道를 志向하여 반드시 聖人에 이르고 난 뒤에 그 만들 것」이라고 한다.

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君子는 글을 널리 배우고 禮로써 단속해야 비로소 道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引用하여 衍義⁷⁹⁾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朱子와 程子の 註釋을 부치고 있는데 朱子는 「말하기를 君子는 배우기를 넓이하고자 함으로 古語의 글에 상고 안이함이 없고 곧 格物致知하여야 하고, 그 緊要함을 지키고져 함으로 그 君子가 움직여 行하는데 반드시 禮로써 할 것이니 곧 克己復禮로써 할 것이니 만일 이같이 하면 道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程子は 글에 넓이 배우고 禮로써 緊要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汗漫博學하는데

29) 子曰 志於道據於德依於仁游於藝(《論語》述而)

30) 子曰 博學於文而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論語》(雍也篇, 顏淵篇))

대개 글에 넓이 배우면 天下萬物의 이치를 마음이 다 궁구하여 보는 것이 극히 넓되 빈데로 흐르지 아니하고 禮로써 지킨 즉 움직임에 반드시 바른 바로 하여 넘치는데로 가지 아니할지니 道에 뜻을 두는 者 넓이 배우고 禮로 지킴을 힘쓸지니라(《儒教經典彙譯 論語》)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能히 禮를 지켜서 規矩에 따른다면 또한 道에 違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晦齋는 按察하기를 「文은 詩書文藝의 文을 이르고 禮는 天理의 本然이요 人心의 固有한 것으로서 截然히 定則이 있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學問은 반드시 廣博에서 要約으로 歸着해야 될 것이니 廣博하기만하고 要約하지 못하면 泛濫支離하여 그 廣博이 혹은 雜駁에 흐르게 될 것이고 要約하기만 하고 廣博하지 못하면 偏狹固滯하여 그 要約하는 것 或 固陋한데 흐를 것이니 이것이 廣博과 要約의 兼盡하는 것을 貴重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은 비록 學者를 위하여 말하였지만 그러나 帝王의 窮理體道の 學도 또한 이같은 것에 不過할 뿐」이라고 한다. 「대개 經史를 博涉하여 性命의 根源을 窮究하고 人倫의 道를 考察하고 治亂의 기틀을 밝혀서 天下事物의 이치를 내마음에 洞徹하여 疑碍된 바가 없는 것은 廣博의 지극한 것이고 마음에 誠敬을 두고 몸에 道를 體得하여 一言一動이 天理의 當然에 따라서 偏頗된 점이 없는 것은 要約의 지극함이다. 만약 廣博을 먼저 하지 않고 나의 自得한 것만 가지고서 據依를 삼는다면 그칠바의 것이 반드시 天下의 至善이 아닐 것이며 所執한 것이 반드시 天下의 時中이 아닐 것이므로 非禮의 禮로써 禮로 삼는 者가 있을 것이니 어찌 能히 道에 違背되지 않겠는가」하고 「이것이 學問은 廣博하지 않아서는 안되고 또 要約에 歸着되지 않아서 안되는 까닭」³⁰⁾이라는 것이다.

다음에 《論語》 「子 | 曰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를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아니하면 마음에 求하지 아니함인 고로 어두워서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익히지 아니함인 故로 危殆하여 편안치 못할 것이니 대개 넓이 배우는 것과 자세히 묻는 것과 참가히 생각하는 것과 밝게 分辨하는 것과 篤實히 行하는 이 다섯가지 가운데 하나만 廢하여도 學問하는 道가 아니니라」³¹⁾는 뜻이다.

「朱子是 마음에 求하지 않는 까닭으로 昏昧하여 所得이 없으며 그 일을 익히지 않는 까닭으로 危殆하여 不安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晦齋는 按察하기를 「學이라는 것은 聖賢의 일을 講習하여 본받는 것이며 思라는 것은 그 理의 所以然을 研窮함을 이룬 것」이라고 하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지 아니하면 그 理를 밝혀서 마음에 얻음이 없을 것이므로 그 배운 바도 또 粗跡일 뿐이며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 理를 充實히 하여 踐履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研窮하여 얻은 것도 또한 장차 危殆不安하여 마침내 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30) 如或不先於博而徑執吾所自得者以爲據依則所止者未必天下之至善所執者未必天下之時中而以非禮之禮爲禮者有之矣安能不昧於道乎此學之所以不可不博而又不可以不反之約也(《中庸九經衍義》卷之三, 「子曰博學於文」條)

31) 《儒教經典諺譯叢書 論語》(1921) 爲政第二.

「세상에 學問하는 者는 聖賢의 書를 읽고 聖賢의 자취를 思慕하여도 能히 道를 밝히 聖域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만 그 研窮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그 혹시 資性이 明達하여 求道에 뜻을 둔 者도 오로지 思索에만 힘써서 幽妙에만 注心하고 聖賢의 明法은 講求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한 것도 혹시 그 中正을 잃게 됨으로써 空寂에 浸淫하게 된 者도 또한 있을 것」이라고 한다.

書經에 「思曰睿睿作聖³²⁾」이라고 하였는데 周子는 「思」라고 한 것은 聖功의 근본이니 생각지 않으면 能히 微妙를 通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思가 學에 있어 利益됨이 매우 크다」고 한다. 「대저 主敬하여 그 根本을 세우는 것은 學問하는데 있어 마땅히 먼저 할 것인데 다만 그 敬하지 않는 까닭으로 學問을 하면서도 能히 생각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

「先儒가 靜坐로써 居敬窮理의 要緊한 것으로 삼았다. 하니 君主의 學도 또한 마땅이 이로써 法을 삼을 것이라고 한다. 「聲色을 屏絶하고 靜坐清心하여 聖賢의 謨訓을 探討하고 義理의 精微를 研窮하며 天人性命의 根源과 古今 治亂의 變遷과 人材消長의 幾微와 生民休戚의 事情에 이르기까지 尋思研究하지 않음이 없어서 胸中이 환하게 通하여 疑惑障礙됨이 없다면 그 마음에 自得하여 言行에 나타나는 것도 반드시 能히 純一無雜하고 光明正大하여 天下가 그 恩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哀公이 묻기를 弟子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孔子께서 對答하여 말씀하시대 顏回라 하는 者 있어 배우기를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며 허물을 다시 하지 아니 하였다」³³⁾를 引用衍義하고 있다.

朱子는 말하기를 「甲에게 怒한 것을 乙에게 옮기지 않고 앞에 허물이 있음을 後에 다시 하지 아니하여 克己의 功이 이에 이르니 참으로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程子는 말하기를 「顏子의 노여움이 저 사람에게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찌 저 한 사람에게 대한 노여움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또 내가 不善(微細한 허물)이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함이 아닌즉 알고서야 어찌 두번다시 行하지 않았으니 허물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기쁘고 怒함이 상대하는 일에 있는 즉 理致上 當然하게 (理論적으로 當然하게) 기뻐하고 怒할 일이야. (왜냐하면 七情은 聖人이나 凡人의 구별없이 本性의 用이기 때문이다.) 기쁘고 怒함이 血氣에 있지 아니하면 옮기지 않을 것이니 舜임금이 四凶을 죽인 것과 같다. 舜임금의 怒함이 저들 四凶에 있으니 舜임금이 어찌 관여할 것인가.

32) 貌曰恭言曰從視曰明聽曰聰思曰睿恭作肅從作乂明作哲聰作謀睿作聖(《書經》 洪範)

용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順하여야 하고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들음은 분명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공손함은 엄숙하도록 만들고 順함은 條理가 있도록 만들고 분명하게 듣는 것은 꾀를 만들고 지혜는 성인을 만든다. (《新完譯書經》 洪範).

33) 哀公이 問弟子 | 孰爲好學이니 있고 孔子 | 對曰 有顏回者 | 好學하여 不遷怒하며 不貳過하며 不幸短命死矣라 今也則亡하니 未聞好學者也케이다. (《論語》 雍也篇)

거울이 物體를 비치는 것처럼 아름답고 더러움은 物體에 있으므로 物體를 따라 비치는 것 뿐이니 어찌 옮김이 있겠는가]고 한다.

또 「말하기를 顏子와 같은 地位에 있는 이가 어찌 不善이 있겠는가. 所謂不善이라고 하는 것은 (易, 繫辭傳에 있는 不善이라 하는 것은) 조그마한 差失이 있는 것이니 겨우 差失이 있자마자 문득 이것을 알게 되고 겨우 이것을 알자 마자 문득 다시 싹트지 않았던 것」³⁴⁾이라 한다.

「或者가 말하기를 詩書六藝를 七十弟子가 익혀서 通하지 않음이 없는데 孔子께서 홀로 顏子만을 일컬어 學問을 좋아한다 하였으니 顏子의 좋아한 바는 과연 어떤배 옮인가 하였다. 程子는 말하기를 顏子의 學은 배워서 聖人이 되는 法이다. 이것을 배우는 法은 어떤 것인가 하거늘 天地陰陽의 精氣를 쌓아 (儲)모아 五行의 빼어난 氣를 얻은 者가 사 람이 되었다. 그 本體는 人爲가 섞이지 않는 眞이며 그 처음에 아직 物에 未感일 때는 寂然不動하여 靜이다. 그 未發의 靜일 때 五性이 具備된다. 五性이란 仁義禮智信이다. (五性은 五行의 理이다. 사람에 具備되어 仁義禮智信이라고 한다. 이 理는 우리들에게 具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本體는 眞이며 靜이라고 한다. 未發의 中은 不偏不倚의 곳이다. 形體가 이미 出生할 때는 聖凡隔差없이 外物이 그 形體에 부딪쳐서 心中에 움직인다. (움직이는 바를 情이라고 이른다.) 그 中에 움직여서 七情이 나온다. 七情이라고 하는 것은 喜怒哀懼愛惡欲이다. 情이 이미 더워서 더욱 放蕩해지면 그 性品이 늘린다. (이것이 發해서 中節이 되지 못하면 그 眞을 잃는다.) 그 때문에 學者는 그 情을 約하여 (欲心을 放縱치 않고) 中에 숨쳐서 (發而中節) 그 마음의 本體를 바꾸고 그 性을 기를(養)뿐이다. (그러나 情을 約하여 中에 숨치고저 하더라도 格物致知의 修行을 하지 않으면 그 法을 분별할 수 없다. 마치 가고저 하지만 어두운 밤에 등불없이 길을 찾아 가는 듯 만드시 먼저 格物致知를 修行하고 善을 밝히고 마음을 밝혀서 뜻이 나아가는 바의 善惡을 알아서 그 然後에 擇善하여 힘써 行하여 黜에 이르기를 求한다) 그러나, 만드시 저 먼 마음을 밝혀 맘이가는 바를 안 연후에 힘써 行하여 黜에 이르기를 求한다. 所謂 明으로 말미암아 誠한(自明而誠也)이다. 그 때문에 배움은 만드시 그 마음을 다할 것이니 그 마음을 다하면 그 性을 알 것이고 그 性을 알면 도리켜 誠할 것이니 聖人이 된다]는 것이다.

「단약³⁵⁾ 顏子의 「非禮勿視聽言動」의 가르침을 지켜 修行하고 드디어 不遷怒不貳過와 같은 것은 顏子의 배움을 좋아하는 뜻이 돈독하고 배우는 其道(方法)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顏子가 아직도 聖人에 이르지 못한것은 지킴(守之也. 守라고하는 것은 힘써 行

34) 又曰如顏子地位豈有不善所謂不善只是微有差失纔差失便能知之纔知之便更不萌作(《中庸九經衍義》卷之三, 「哀公問弟子」條).

35) 若顏子之非禮勿視聽言動不遷怒貳過者則其好之篤而學之得其道也然未至於聖人者守之也 非化之也 假之以年則不日而化矣今人乃謂聖本生知非學可至而所以爲學者不過記誦文辭之間而 己其亦異乎顏子之學矣(《中庸九經衍義》卷之三, 「哀公問弟子」條).

하는 迹이 있다)이요. 化하는 것(化라고 하는 것은 迹이 없는 것이다. 融化自在를 化라고 이른다)이 아니다. 하늘(天)이 더 오래 살게 하였더라면 얼마 안가서 化하였을 것이다.

이에 聖人이라고 이르는 오늘날 사람은 本來나면서 알았고 배워서 能히 이를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 學問한다는 것이 記誦文辭에 不過할 뿐이니 그 또한 顏子의 學(心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晦齋는 按察하기를 「顏子³⁶⁾의 學은 自彊不息하여 聖人의 道에 이른 까닭으로 孔子께서 그 好學함을 일컬었으니 帝王의 學問하는 者도 또한 마땅히 이로써 規準을 삼을 것이라고 하고 대제 聖人의 마음은 지극히 虛靈하고 지극히 公偏하니 그 靜할 때는 寂然不動하여 渾然한 天理뿐이며 物에 느껴서 움직일 때는 喜怒哀樂이 각기 理致에 마땅하여 조금의 差繆도 없다」고 한다.

「怒는 七情中에 있어서도 가장 制御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마땅히 物을 怒할만한 것으로 因하여 怒하게 되니 自己가 관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顏子의 不遷怒, 不貳過도 聖人의 無我에 가까운 까닭으로 程子が 말하기를 顏子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얼마 안가서 化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聖人도 배워서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저 노여움(怒)이라는 것은 人情의 發하기 쉬운 것이고 過誤는 사람으로서 能히 없을 수 없는 것」이라하고 「凡人들도 또한 謹愼하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인데 君主로서 그 노여움을 能히 節制하지 못하고 혹시 遷移하는데 이른다면 사람이 잘못 죽게될 者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君主의 過誤는 모두 七情의 發에서 萌動하는데 다만 怒와 欲이 많이 차지하게 되니 過誤를 범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이는 惡이 된다」고 하고 있다. 「대저 湯王 같은 聖人으로서도 또한 能히 過誤가 없을 수 없었으니 다만 改過하기를 인식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 聖人된 所以」라고 한다.

「君主는 진실로 能히 그 마음을 淸明히 하고 純一無雜하여 血氣의 움직인 바가 되지 않고 物欲의 가린 바가 되지 않아서 喜怒哀賞을 天理의 公에 한결같이 따라하고 조그만 한 私意도 그 中間에 없게 하며 忿懣舉措의 즘음에 혹시 差失이 있으면 문득 스스로 자성하며 諫言을 聽從하여 거스리지말며 廓然大公하여 滯吝이 없으면 그 過誤는 日食月食처럼 되어 過誤있을 적엔 사람이 모두 그것을 보게 되고 改過할 때에는 사람이 다 우러러 볼 것이니 그 聖人의 道에 멀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窮理를 힘써서 天理人欲의 기들을 살피 天理를 擴充하고 人欲退絶의 功을 이룬 然後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것이 所謂精一執中의 일이며 君主가 聖學에 뜻을 둔다면 그 또한 이에 힘쓸 뿐」이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孟子》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는데 孟子가 말했다. 「君子가 적절한 方法으로 깊이 조예를 쌓는 것은 스스로 道를 터득하기 위해서이다. 스스로 가슴속에 道를 얻으면 자세가 安定이 된다.

자세가 안정이 되면 道를 活用하는데 더욱 깊어진다* 道를 活用하는데 깊이가 있으면

36) 《中庸九經衍義》卷之三, 「哀公問 弟子」條.

左右의 가까운 곳에서 道를 行하여도 道의 根源과 일치하게 된다. 그런 故로 君子는 道를 스스로 터득하려고 원한다」³⁷⁾는 것이다.

朱子는 말하기를 「深造라는 것은 나아가 쉬지 않는다는 뜻이고 道는 그 나아가는 方法이라고 한다. 또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의 차례는 곧 道에 나아가는 方法이니 만약 사람이 學問을 하되 能히 道로서 하고 學問하기를 쉬지 않고 道에 나아가기를 더욱 깊이 한다면 自然的으로 自得할것」이라고 한다.

程子는 말하기를 「배워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얻는 者는 이에 自得한 것」이고 安排하고 布置함이 있는 者는 다 自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쌓아서 그 사이에 優游하고 넉넉해야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니 만일 急迫하게 求하면 이것은 몸을 사사로히 할 뿐이어서 마침내 못할것」³⁸⁾이라 한다.

以上과 같이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인 修身은 同時에 「大學의 道」의 根本인데 이 修身의 根源은 格物致知이며 講學明理의 功이 修身의 根本임을 밝히고 易·文言의 進德居業, 大畜卦 象傳의 「天在山中大畜」 「君子以多識前言往行以畜其德」, 易大傳의 「窮理盡性以至於命」 《論語》의 「志於道據於德依於人游於藝」와 「博文約禮」 그리고 顏子가 好學하여 「不遷怒 不貳過」, 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殆」, 「思曰睿睿作聖」을 들고 또 《孟子》 등에서도 引用하여 「講學明理之功」을 衍義하고 있다.

Ⅲ. 講學明理의 功(修身三)

1. 盡心知性·存心養性·人皆可以爲堯舜·尊德性而道問學

먼저 孟子에서 引用하고 朱子說로 衍義하고 있다. 孟子가 말했다. 「自己的 靈명한 本心を 끝까지 발휘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者는 하늘이 부여해준 自己的 本性을 알 수가 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本性을 알면 즉 하늘의 도리를 알 수가 있다.

영원한 本心を 잘 간직하고 天賦의 착한 本性을 잘 키우는 것이 바로 萬物의 근원인 하늘을 섬기는 것이 된다」³⁹⁾

朱子는 말하기를 「心이라는 것은 사람의 神明이나 여러 理致를 갖추어 萬事를 應하는 바이오 性은 마음의 갖춘바의 理致오 天은 또 理致의 쫓아나온 바이라」고 하고 「大學의 順序로서 말한다면 性命을 안다는 것 知性은 物格을 이룸이고 盡心은 知至를 이룸」이라는 것이다.

또 「盡心하고 知性하여 知天하는 것은 그 理致에 나아가는 것이고 存心養性하여 事天

37) 孟子曰君子深造之以道欲其自得之也自得之則居之安居之安則資之深資之深則取之左右逢其原故君子欲其自得之也《孟子》離婁章句下.

38) 《中庸九經衍義》卷之三, 末尾

39) 《新完譯四書五經孟子》盡心章句上參照.

하는 것은 그 섭김(事)을 履行하는 것이다. 그 理를 알지 못하면 진실로 그 섭김(事)을 能히 履行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한갓 그 理에만 나아가고 섭김(事)은 能히 履行하지 못하면 또한 자기에게 있는 것이아 니라]고 한다.

「滕文公이世子되었을 때 장차 楚나라에 갈새 宋나라를 지나다가 孟子를 보신대 孟子가 性품의 착함을 말하되 말마다 반드시 堯임금과 舜임금을 말하였다.世子가 楚나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孟子를 보신대 孟子가 말하기를世子는 내말을 疑心하십니까 道는 하나일 뿐입니다.」

朱子는 말하기를「性품은 渾然히 착하고 일찌기 惡함이 없으니 사람은 堯舜과 처음에는 조금도 다를바가 없으나 다만 여러 사람은 사사 욕심에 골몰함으로 잃어버리고 堯舜은 사사 욕심의 가리움이 없이 能히 그 성품을 채운(充)까닭으로 孟子가 滕나라世子와 말할때 매양 성품이 착함을 말하되 반드시 堯舜을 말하여 仁과 義를 밖에 求하지 아니 할 것과 聖人을 배워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用力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어서「그때 사람은 性이 본래 善함을 알지 못함으로써 聖賢은 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世子도 孟子의 말에 能히 疑心이 없을 수 없으므로 다시와서 보기를 求하니 대개 卑近하고 行하기 쉬운말이 있을까 함이었다. 孟子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같이 告하여 古今の 聖愚가 본래 같은 一性임을 밝혀서 앞에 한말에 이미 다說明되었으니 다시 다른 說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⁴⁰⁾고 한다.

晦齋는 按察하기를「戰國時代に 聖學이 밝지 못하여 天下 사람이 다만 功利를 求할줄만 알고 人性이 본래 善함과 聖賢도 可히 배울수 있음을 알지 못한 까닭으로 孟子는 人性이 善함을 말할적에 반드시 堯舜을 일컬어 사실(事實)케 하였다」는 것이다.

「대체 堯舜의 聖人이 된 所以도 또한 窮理盡性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고 대개 하늘이 사람에게 命令하여 純粹至善한 것은 처음부터 古今智愚의 差異가 없다. 君主가 學問에 뜻을 둔다면 堯舜으로써 高遠하다 하고 卑近한데 自處하겠는가」고 한다.

이어서 晦齋는《中庸》에서 引用해서 衍義하고 있다. 中庸에 말하기를「君子는 尊德性而道問學이니 致廣大而盡精微하며 極高明而道中庸하며 溫故而知新하며 敦厚以崇禮니라」한다.

이 구절은 聖人이 되기 위한 君子의 道를 말하고 있다. 朱子는 말하기를「尊」은 恭敬 捧持의 뜻이며,「德性이란 自己가 하늘로부터 받은 바의 正理」라고 한다. 道는 由, 問學은 學問이다. 尊德性而道問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부여되어 있는 곧 出生과 더불어 몸에 지니고 있는 바의(理)性 에대해서 尊敬하고 그것을 敬虔하게

40) 時人不知性之本善而以聖賢爲不可企及故世子於孟子之言不能無疑而復來求見蓋恐有卑近易行之說也孟子知之故但告之如此以明古今聖愚本同一性前言已盡無復有他說也(《中庸九經衍義》卷之四, 「滕文公爲世子」條).

維持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問學에 달미않는다(依據한다) 곧 그와같은 修養에 대해서 오히려 對照的인 客觀的인 格物致知와 같은 學問에 依據하려고 한다.

致廣大而盡精微라고 하는 것은 人間과 事物의 여러가지 多樣性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本來的인 理에 있어서는 한가지라는 事實이다. 곧 무엇이나 平等하고 同一한 理萬人萬物에 共通, 廣大한 理를 完全하게 發揮(致)하는 것과 각각 各人各物에 있어서 相異한 바의 理 곧 細分되어 있는 精微한 理를 精密하게 다 分析한다는 뜻이다. 前者가 廣大한 理를 全的으로 體現하려는 道德的 立場이라면 後者는 그것과는 다른 영역의 學問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極高明而道中庸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極高明이라는 것은 萬物을 높이 초월하고 物의 妨害를 받지 않은 德性이 빛나는 경지, 그와 같은 境地에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한다. 中庸에 依한다(달미않는다)는 것은, 일을 行함에 있어서 過不及이 없게 細密하게 中庸의 法則에 따라서 한다. 곧 學問的인 吟味에 속하는 것이다. 極高明만 하고 中庸에 依하지 아니하는 典型的인 것은 所謂 佛老의 學이라고 하고 있다. 儒學이 庖廚를 멀리할 때 佛老는 高明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殺生을 禁하고 肉食을 禁하는 데 이르렀고 儒學이 聲色을 가까이(邇)하지 않고 貨殖을 일삼지 말 것을 말할 뿐인데 대해서 그들은 高明을 求하는 나머지 마침내 人倫을 끊고(夫婦라고 하는 바른 존재 양식을 떠나서 獨身主義를 取한다) 내 것을 쪼개서 남에게 준다(布施) 陸子靜도 天性이 실로 高明하지만 中庸에 依하려 하지 않는』⁴¹⁾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溫故而知新은 前者가 德性을 尊重하는 方向, 後者가 問學에 의한 方向이다. 溫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끓인 음식을 다시 드수는 것. 곧, 한 번 배운 것을 때로 이것을 익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溫故는 오히려 道問學의 범주에 속하지만 知新과 비교하면 尊德性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溫故는 힘을 더는 方向이고 知新은 그 造詣가 더욱 깊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敦厚以崇禮란 重厚한 人品을 더욱 두텁게 한다.(敦) 곧 더욱 重厚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尊德性의 方向이며, 崇禮라고 하는 것은 禮 三百, 三千의 細目이 있으니 問學에 依하지 않으면 안된다.

要件데, 「尊德性」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어디까지나 維持하여(孟子가 말하는 存心) 道·理의 極大의 方向의 體現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道問學」이라는 것은 致知에 의해서 道·理의 極小의 方向, 具體的 探究의 方向을 목표로 한다. 이 兩方向은 德을 닦고 成道(擬道)하는데, 대한 두가지 基本的인 범주의 系列을 이룬다. 私意를 가지고 自己의 道德性을 가리지 않고(致廣大), 私欲을 가지고 自己의 道德性을 妨害하지 않고(極高明), 既知의 지식 가운데 道德性을 기르고(溫故), 그 이미 到達된 바의 道德能力을 더욱 돈독히 한다(敦厚). 이것은 다 尊德性 곧 存心系列이다.

41) 島田虔次, 《中庸》(朝日新聞, 1978), p.176.

「理」를 分析하여 털끝만한 誤謬도 없게 하고 (盡精微), 일을 處理하는데 過不及의 誤謬를 없게 하고(道中庸), 理義에 관해서는 날로 새로운 知識을 쌓아서(知新), 禮의 細目 節文에 대해서 말하면 날로 참가할 知識을 더해간다(崇禮). 이들은 다 道問學 곧 致知의 系列에 속한다.

要컨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儒教的인 意味의 學(尊德性·存心, 道問學·致知와 의 統一로서 學) 곧 入德의 方法을 가리킨 것인데 存心に 依하지 않으면 致知할 수 없고 致知에 依하지 않고는 存心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 五句는 그와 같은 意味에서 相互 依存의 系列的 對應을 잘 보여주고 있다.

晦齋는 이에 按察하기를 「이 一節은 學問의 道에 가장 詳細할 뿐더러 帝王學에 더욱 緊要함이 있다」⁴²⁾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孟子》에서 引用하여 「盡心知性而知天」「存心養性事天」을 衍義하고 있다.

또 滕文公이世子일 때 孟子가 性善을 告한 것을 引用하여 「堯舜의 聖人된 所以도 또한 窮理盡性에 不過 할 뿐」이라고 하고 사람은 다 聖賢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밝혀 講學明理하였다. 《中庸》에서 「尊德性而道問學」「致廣大而盡精微極高明而道中庸溫故而知新敦厚以崇禮」를 引用하고 朱子說과 스스로의 按察로 衍義하여 講學明理하였다.

2. 德性氣質·中爲至正·先辨學術之邪正是非·一以貫之

위에 이어서 晦齋는 또 《中庸》에서 引用하고 朱子, 呂大臨說을 달고 스스로 按察하고 衍義하고 있다. 《中庸》에서 引用하기를 「或生而知之하며 或學而知之하며 或困而知之하나니 及其知之하야는 一也」니라. 或安而行之하며 或利而行之하며 或勉強而行之하나니 及其成功하야는 一也」니라」이다.

이어서 「誠者는 天之道也」오 誠之者는 人之道也」니 誠者는 不勉而中하며 不思而得하야 從中道하나니 聖人也」오 誠之者는 擇善而固執之者也」니라.

博學之하며 審問之하며 慎思之하며 明辨之하며 篤行之니라

有弗學이언정 學之인댄 弗能을 弗措也하며 有弗問이언정 問之인댄 弗知를 弗措也하며 有弗思이언정 思之인댄 弗得을 弗措也하며 有弗辨이언정 辨之인댄 弗明을 弗措也하며 有弗行이언정 行之인댄 弗篤을 弗措也하야 人一能之어든 己百之하며 人十能之어든 己千之니라.

果能此道矣면 雖愚」나 必明하며 雖柔」나 必強이니라」를 引用하였다. 그리고 諸家の 說을 덧붙이고 晦齋가 스스로 按察하고 있다.

「或生而知之 以下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는 孔子가 魯나라 哀公에게 告한 말이라고 하고 哀公이 政事를 물으니 孔子는 이미 九經의 뜻(義)으로 告하고 또 學問하는 道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대개 받드시 이 學問이 있는 然後에 能히 修身하고 天下國家를

42) 此一節最詳於學問之道而尤有切於帝王之學……(《中庸九經衍義》卷之四,「中庸曰君子尊德性」條)

다스릴 수 있다⁴³⁾」고 하고 있다.

이어서 《中庸》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子」曰 道之不行也를 我知之矣로라 知者는 過之하고 愚者는 不及也」니라. 道之不明也를 我知之矣로라. 賢者는 過之하고 不肖者는 不及也」니라이다.

晦齋는 按察하기를 「道の 明, 晦, 通, 塞은 天下國家의 否, 泰, 治, 亂이 매어진 바(所繫)」라 하고 「君主가 政治에 뜻을 둔다면 이 道를 講明하여 行할 바를 求할 것인저」고 한다.

君主가 道에 뜻을 둔다면 마땅히 知, 愚, 賢, 不肖者의 過하고 不及한 弊端을 먼저 밝혀서 반드시 中庸의 理를 求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몸에 體得하여 篤實히 믿고 힘써 行하여 邪說에 의혹되지 않는다면 어찌 道の 밝지 않고 行하지 않음을 어찌 근심하겠는가」고 한다.

또, 「子」曰 回之爲人也」擇乎中庸하야 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니라」를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晦齋는 按察하기를⁴⁴⁾ 「天下의 理는 오직 中이 至正이 되니 이것이 平常 不易의 道이다. 中밖에 다시 所謂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옛 聖人の 傳授한 心法이 오직 中에 있었으나, 대개 聖人の 道는 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고 「顔子의 學은 虞書精一의 訓에 얻음이 있었기 때문에 能히 擇善하여 能히 지킴이 이와 같았으니 이것이 그가 聖人の 道를 얻어 百世의 師表가 된 所以라는 것이다. 「君主의 學은 더욱 中庸을 擇하지 않을 수 없다. 堯舜三王, 周公과 孔子의 道는 人倫에 根本하여 天道에 合하니 이것이 中庸이며 天下의 達道」라는 것이다. 「老子, 佛氏의 虛無寂滅은 空虛에 빠져서 지나치게 되고 管仲, 商鞅의 權謀術數는 汙賤에 떨어져 不及하게 되었으니 모두 中庸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 「君主는 講學明理하여 반드시 天下學術의 邪正是非를 먼저 辨別하여 所謂中이라고 하는 것을 求해서 잡고 몸에 體하고 백성에게 施行한다면 千聖相傳의 道統을 能히 계승하여 天下가 그 恩澤을 입게 된다」고 한다.

이어서 《論語》「衛靈公篇」에서 引用하여 衍義하고 있다. 곧 「子」曰 賜也아 女」以予로 爲多學而識之者與아 對曰然하이다. 非與잇가 曰 非也」라 주는 一以貫之니라이다.

謝良佐가 말하기를⁴⁵⁾ 「聖人の 道는 큰지라 사람이 能히 두루 모고 다 알지 못하니 마땅히 많이 배워서 기록하여 알 것이라 할 것이니 그러나 聖人이 어찌 博識하기를 힘썼으리요」한다. 「하늘이 衆形에 물건마다 하나 하나 아로 새긴 것이 아닌 것과 같다」는 것이다.

43) 《中庸九經衍義》卷之四, 「或生而知之」條.

44) 臣按天下之理惟中爲至正是乃平常不易之道也非於中之外復有所謂庸也 古昔聖人傳授心法惟在於中蓋聖人道無逾於此也顔子之學有得於虞書精一之訓故能擇能守如此(《中庸九經衍義》卷之四, 「子曰道之不行也」條).

45) 謝良佐曰聖人之道大矣人不能遍觀而盡識宜其以爲多學而識之也(《中庸九經衍義》卷之四, 「子曰賜也」條).

朱子は 말하기를 「聖人は 生而知之하였으니 진실로 많이 배우기를 不待하였는데 子貢이 自己의 觀點으로 孔子를 보고 또한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한다. 「孔子는 一貫으로써 告하여 學者들에게 비록 多學하지 않을 수 없으나 또한 「所謂一理」로서 貫通해야만 지극함이 됨을 알게 한 것」이라고 한다.

또 「聖인도 博學多識을 理會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聖인의 聖人된 所以는 博學多識에 있지 않고 一以貫之하는데 있다. 오늘날의 사람이 博學多識하면서도 能히 聖인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만 一理으로써 貫通함이 없는 때문이다. 그러나, 博學多識하지 않으면 또한 어느 事物도 貫通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孔子는 實로 多識하여 한가지 일도 理會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나 다만 이 多學中에 一理으로써 貫通함이 있었던 것」⁴⁶⁾이라고 한다.

또 「하늘은 一氣가 流行하여도 萬物이 스스로 나고 스스로 자라며 스스로 形象과 빛깔이 나게 되어 어찌 이것이 粉飾해서 이같이 되겠는가」고 한다. 「聖인은 다만 하나의 大本大源속에서 流出하여 보는 것은 自然히 밝아지고 듣는 것은 自然히 총명해지고 色은 自然히 溫和해지고 貌는 自然히 엄숙해지며 父子에 있어서는 仁이 되고 君臣에 있어서는 義가 되었던 것이다. 大本 가운데 中에서 流出하여 문득 許多한 道理를 이루었는데 이것을 一理로서 문득 貫通해 간다는 것」이라 하고 있다.

晦齋는 按察하기를 「天下의 理致는 萬化가 一源이고 萬殊가 一本이니 이것은 萬이 一이 되고 一은 실로 萬으로 나누어진 것이라」고 한다. 「學者가 道에 뜻을 두고 진실로 能히 一理渾然의 極致에 통달하지 못한다면 道에 나아가서 聖인의 地域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 多學에 말미암지 않으면 또한 萬理를 窮究하여 그 一理를 理會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문에 반드시 格物窮理하여 그 넓음을 이루고 主敬力行하여 要約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니 그 積累함이 이미 오래되어 豁然히 貫通하면 그 이전에 多學하여 얻은 것도 비로소 그것이 一本이지 二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子貢의 學問이 終末에는 性과 天道를 듣게 되었으니 그 또한 이에 얻음이 있었다」⁴⁷⁾고 하고 있다.

이어서 晦齋는 《論語》에서 引用 衍義하고 있다. 論語에는 「子 | 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 | 曰 唯 | 라 子 | 出커지실 門人이 問曰何謂也 | 있고 曾子 | 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한다.

이에 晦齋는 朱子와 程子 그리고 眞德秀의 說을 引用 衍義하고 스스로 按察하기를 하늘(天)은 一으로써 萬化를 主宰하고 聖인은 一으로써 萬事に 應한다」고 하고 「聖인의 德이 天地와 合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天地間에는 陰陽과 四時가 變化無窮하

46) 又曰聖人不是不理會博學多識只聖人之所以爲聖却不在于博學多識而在一以貫之今人博學多識而不能至於聖者只是無一以貫之然不博學多識則又無物可貫(《中庸九經衍義》卷之四, 「子曰賜也」條).

47) 臣按天下之理萬化一源萬殊一本是萬爲一實萬分學者有志於道苟不能達於一理渾然之極則無以造道而入聖矣(《中庸九經衍義》卷之四, 「子曰賜也」條)

고 飛潛動植이 자기 性命을 바꾸는 것은 一本의 所爲이다. 聖人의 마음은 無思無慮하여도 萬變에 酬酢하여 자기 그 옳음을 얻게 되고 動容周旋이 禮節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은 또한 一이 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黃帝 堯舜이 衣裳만 드리우고 天下가 다스려진 것은 또한 그 一을 얻었을 뿐」이라고 한다.

以上과 같이 呂大臨은 「君子所以學者爲能變化氣質而已德勝氣質」의 說을 달고 晦齋先生은 按察하기를 「或生而知之以下로 부터 이에 이르기까지(雖愚나 必明하며 雖柔나 必強이니라)는 孔子가 魯哀公에게 告했던 말이며 哀公이 政事를 물으니 孔子는 이미 九經의 뜻(義)으로써 告하고 또 學問하는 道를 말씀하심이 이와같았으니 대개 반드시 이 學問이 있어야만 能히 修身하고 天下國家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中庸」에 대해서 程子の 學說「不偏之謂中不易之謂庸中者天下之正道庸者天下之定理」와 朱子學說「中者不偏不倚無過不及之名庸平常也」를 달고 스스로 按察하기를 「天下의 理致는 오직 中이 至正이 되니 이것이 平常 不易의 道이고 中밖에 다시 所謂·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옛 聖人의 道는 이에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堯舜 三王, 周公, 孔子의 道는 人倫에 根本하여 天道에 合하니 이 것이 中庸이며 天下의 達道이다. 老子, 佛氏의 虛無寂滅은 空虛에 빠져 過하게 되고 管仲 商鞅의 權謀術數는 汙賤에 떨어져 不及하게 되었으니 다 中庸이 아니다. 君主는 講學明理하여 반드시 天下學術의 邪正是非를 먼저 辨別하여 이른바 中을 求하여 잡아야(執之)」된다고 한다. 그리고 「一以貫之」에 관하여 諸家의 學說을 붙이고 스스로 按察하여 講學明理하고 있다.

Ⅳ. 結 論

天下國家를 다스리는 根本((爲天下國家之本)은 修身이다. 晦齋는 이 修身을 衍義하는데 있어서 前述한바와 같이 「總論修身之道」「講學明理之功」「誠意正心之功」「言行成意之勤」으로 나누어 論述하고 있는데 이 論文의 範圍인 「講學明理之功」에 관한 衍義는 誠「意正心之功」과 더불어 詳細하게 論하여 많은 紙面을 割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先生은 修身의 根源이 《大學》의 八條目으로 말하면 「格物致知」에 있다고 보고 詳細하게 衍義하였다고 생각되거나 「格物致知」가 곧 「講學明理之功」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先生은 道學의 經典에서 引用하고 諸家의 學說을 考察하여 聖經賢傳의 奧旨를 推求한 뒤에 스스로 按察함으로써 講學明理하고 있다.

그 範圍와 方法 取捨 善擇이 先生의 按察한 것이 先生의 講學明理에 관한 政治思想이라고 하겠다.

이 思想의 內容과 그 本質은 本論에서 조금은 밝혀졌다고 할 것이지만 現代의 人間喪失의 難點과 經綸의 貧困을 克服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著述로 여겨진다. 道學政治思想은 일찍이 宗教가 政治化 되었고 政治가 人道化된 事實과 密接하게 關聯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政治의 人道化란 政治의 効率을 人道에 求한 것이다.